

제2기 물류전문 컨설턴트 29명 배출



현재 대한민국은 물류산업을 이끌어갈 물류전문 컨설턴트가 절실히 필요하다. 글로벌 물류시대를 맞이하여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각 제조업체도 물류전문가, 특히 글로벌 물류인재에 목말라 하고 있다. (사)한국물류협회(회장 : 서병륜)는 지난 6월 17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2기 물류전문컨설턴트 29명을 배출하면서, 기업체들의 전문인력의 갈증에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다.

명지대학교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은 물류분야 최고의 컨설턴트와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회사 및 업계에서 물류컨설턴트로 활동할 물류지도자를 양성하는 자격 과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이 과정은 우수한 강사진과 커리큘럼으로 국내기업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제1기 과정과 제2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오는 9월에 실시되는 제3기 과정에는 모집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사전신청자가 11명에 이를 정도로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교육 과정이 물류 전문가라면 알아야 될 내용들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물류업계 전문가들과 인적 Network 구축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제2기 과정을 수료한 LG화학의 오태경부장은 “지금까지 수 많은 교육을 받아 봤고 여러 종류의 모임에도 참여해 봤지만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색다른 교육 과정의 체험을 하였다.”고 말했다.

물류전문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마치고...

- LG화학 부장 오 태 경 -



이 곳이라고 해야 할까?
여기라고 해야 할까? 지
금까지 수 많은 교육을
받아 봤고 여러 종류의
모임에도 참여해 봤지만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
한 전혀 색다른 교육 과
정을 체험하였다. 물론,
교육 과정도 물류 전문가

라면 알아야 될 내용들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지
만 더욱 값지게 느껴진 것은 물류업계 전문가들과 인
적 Network을 구축할 수 있었던데 있다.

대개의 경우 동종 업계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가 서
로를 경계하여 쉽게 마음을 열어 놓지 않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물류인”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각자
소속된 회사를 초월하여 일체감을 만들어 나가고 있
었다.

나는 종종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직장은 있지만 직업은 없다.”라
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즉 회사업무에만 너무 매달리
게 되면 미래가 불확실해 지고 외골수적인 사람이 되
기 쉽다 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물류인”들은 “직
장도 있고 직업도 있다.”라는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
다. 즉 직업은 물류인이고 직장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
다. 그래서 물류업계에서의 입지와 자신의 존재가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는 물류회사가 아닌 제조회사인 LG화학에

서 21년간 근무를 해 오고 있고 물류분야는 금년 초
물류팀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물류인”이라
고 칭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물류 초보자이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분야에 입문한 나로서는 빠른 시
간 내에 물류가 무엇인지 공부하여야만 되고 물류
System이 우수한 회사들의 사례를 많이 보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본 과정은 우연히 물류잡지(격월간 물
류)를 보고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내가 과연 물류전문
가들을 초월한 물류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과감히 용기를
내어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다.

본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강사진들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수강생들이 나의 선생님이었고 컨설턴트들이었
다. 따라서 본 교육 과정을 물류 전문가 관점에서 소
개하기 보다 물류에 있어서는 비록 초보자지만 21년
간 기업에 몸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 과정을 이수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2기 물류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3월 4
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09:30부터 저
녁 18:30까지 총 16주간 진행이 되었고, 마침내 지난
6월 17일 무사히 수료식을 마칠 수 있었다. 매주 토요
일, 직장인이라면 모두 마참가지겠지만 금요일 저녁
만 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마련이고 한 주일 동안 격
무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즐거운 약속들을 뿌
리치고 가족들의 따가운 눈치를 받으며 매주 강의실
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강의실에 들어선 수강생들은 마치 투자에 따
른 철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 라는 자세로 진지한 모

습을 보였고 강의도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나 자신의 견해와 약간이라도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질문공세를 쏟아 부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강사진들을 찢절매도록 만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수강생들이 나와 같은 물류 초보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수년에서 많게는 20년 넘게 물류 실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수강생으로 앉아 있으니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들은 실무를 바탕으로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를 통한 이론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들인 만큼 만약 강사진들이 교과적인 이론만을 내세워 강의를 진행한다면 혹독한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의에 들어 오신 스물네 분의 강사진들 또한 대단한 분들이었다. 화려한 경력들도 물론이거니와 그 폭에 있어서도 국내 물류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에서부터 물류전문기업의 CEO로 계시는 분, 선진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물류를 컨설팅으로 혁신케 만든 교수님.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쟁쟁한 실력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솔직히 나는 물류분야가 이렇게 폭 넓고 깊이가 있는 줄 몰랐다.

비록 수료를 무사히 마쳤지만 나와 같은 초보자가 몇 주간의 강의를 들었다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었다. 더더구나 물류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은 더욱이 갖추질 못하였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왔던 물류에 대한 나의 인식에는 대단한 변화되었고 지금부터 미래에 있어 국가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물류가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된 회사가 제조회사이지만 물류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실행을 병행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체계화하여 나도 물류 전문가 대열에 끼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본 과정은 이러한 이론적 재무장에 있어서도 유익하였지만 무엇보다 크게 얻은 소득은 바로 인적 Network의 형성에 있었다. 물론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개인 혼자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단시간 내에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의 인적 Network으로 만들 수 있었다. 제2기 동기생들은 물론이고 제1기 동기생들도 있고 앞으로 3기, 4기가 만들어지면 나의 인적 Network은 점점 Powerful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의에 들어오신 쟁쟁한 강사진들과의 교류도 우리의 인적 Network 강화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

이러한 인적 Network의 Power는 교육과정 중에도 나에게 대단한 도움이 되었다. 물류팀으로 발령받았을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로서는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물류관련 모르는 용어와 약어들도 너무 많았다. 또한 물류팀으로 오자마자 주어진 과제도 있었다. 그런데 모든 이가 선생님이었다고 조언자들이었다.

예로서 본 과정 중에는 수강생들끼리 팀을 만들어 물류관련 혁신과제를 해결하는 연구과제가 있다. 나는 과감하게 나의 과제를 제시했고 내가 포함된 팀원들은 기꺼이 나의 과제를 혁신과제로 채택해 주었다. 그리고 각자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을 쪼개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맡고 있는 물류현장을 방문하여 구석 구석 돌아보며 진단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밤늦게까지 토론을 해 주었다. 또한 내가 업무 수행 중 궁금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메일로 전 수강생들에게 요청을 하면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보내주었고 심지어 일부러 비싼 책을 사서 읽어 보라고 보내준 고마운 분도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수강생들마다의 전문영역이 무엇인

지 감 잡을 수 있었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한 내용을 머리 속에 다 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되새김질하여 써 먹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다만, 과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공부한 책들 중에 어떤 책을 보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폭 넓은 물류 전문야를 두루 섭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있고 내가 도움을 청하였을 때 기꺼이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 경쟁력이 될 것이고 인적 Network의 Power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는 대단한 전문가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든든하기만 하다.

이왕 소개를 한 김에 과정 중 하나인 일본 선진물류 연수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 2박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기회를 통해 해외 연수를 갔었다면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선진사래 공부만 하다 돌아오는 일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과정 중의 연수는 오랫동안 사귀어 온 아주 절친한 친구들과 떠난 수학여행 비슷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2박3일이 아닌 무박삼일의 여행이 되어 버렸다. 놀라운 것은 보통 이런 강행군을 하고 돌아가는 귀국길이라면 피곤에 지쳐 말 걸기도 싫었을 텐데 일행 중 한 명이 “졸업여행 한번 더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찬동을 하였다. 솔직히 일본 기업 현장들을 잠깐씩 짧게 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물류가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면이 있어 배워야겠다. 라는 것은 별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저녁 이후 자유시간이 되면 좁은 호텔방이지만 수강생 29명과 한국물류협회 진행요원 모두 모여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자신의 업무 이야기 또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들을 털어 놓았고 귀담아 들어 주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술



직히 호텔방 값이 아까웠고 일본 후쿠오카 벳부에 있는 유명한 온천 호텔에 묶으면서 온천물 구경도 못한 사람이 상당수였으니 온천 값이 아까웠다.

또 올빼미처럼 밤을 꼬박 새우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술 처분량이 만만치가 않아 내가 경악해 하니 까 동기 중 한 명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원래 물류는 밤에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강한 것이고 물류의 “물”字는 water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물류인들은 술을 다 잘 마신다.” 라는 것이었다. 건강을 생각해서는 자제가 필요한 일이었으나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각자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어 버리고 서로간의 정을 두텁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나도 기꺼이 동참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재미인가 보다.

비록 힘들기도 한 16주간의 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만약 내가 지난 토요일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난 투자에 비해 아깝지 않은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되었다. 바램이 있다면 부디 많은 “물류인” 들이 본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를 하여 서로간에 강력한 인적 Network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물류에 최고의 전문가 집단의 탄생을 이어지길 소망한다. **물류**